

종단안정 헌신한 '참수행인'

입적한 진공당 탄성스님 행장

8일 이승의 몸을 벗은 진공당 탄성(眞空堂 呑聲) 대선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기 이전에 투철한 수행자였으며, 뜻 수행자들의 표상이었다.

1930년 10월 1일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4년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계룡산 신원사에 갔다가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사흘 닦는 마음은 천년을 두고 보배요, 백년동안 물건을 탐낸다 해도 하루 아침에 티끌이다" (三日修心千載寶 百年食物一朝塵) 라는 구절을 듣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친이 타계한 후 모친과 형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서 출가한다는 말을 감히 꺼낼 수 없었다. 1944

한 정진의 도량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은사인 금오스님의 영광이 컸다. "중이 굴 공부하면 신세 망치는 줄 알라고 이르신 금오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선수행으로 용맹정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하며 "나도 수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며 언제나 참선수행을 강조했다.

조계종단이 큰 비바람에 흔들리는 듯 단배의 지경에 처했을 때는 유능한 선장이었으며 항해사였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 법난 직후 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 종단 안정의 기틀을 다졌다. 94년 당시 의현 총무원장 퇴진 문제로 불거진 분규 때는 개혁회의 상임



◇94년 개혁회의 현판식 때의 탄성스님(현판 오른쪽 첫번째).

위원장 겸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개혁의 중심 역할을 했다. 98년 11월 월주 총무원장 3선 시비로 빛어진 조계종사태 때도 수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언제나 사태가 수습되고 새 총무원장이 뽑히면 곧장 수행처인 공림사로 내려가 수행에 전념했다.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산문 밖으로 나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종단에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부르는 청을 외면하지 않았다. 산문 밖을 나갈 때나 지금이나 수행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며 수행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90년대 들어서만 세 차례의 분규를 겪은 조계종과 불교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대중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난 해 4월 교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한국불교는 놀라울 정도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종단을 이끌어왔던 정화세대가 물러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스님들이 종단 전면에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말했다. 오늘의 우리에게 스님의 이 같은 말은 경쾌의 주비소리이며, 희망을 잃지 말라는 다독임에 다름 아니다.

출가를 발심케 했던 "사흘 닦는 마음은 천년을 두고 보배요, 백년동안 물건을 탐낸다 해도 하루 아침에 티끌이다"는 옛 스님의 가르침처럼, 소탈하고 검소하게 사셨다. 그 흔한 승용차도 갖지 않았으며, 긴 시간 법문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상에 오르기를 사양했다. 겨울에는 털신, 여름에는 흰 고무신이 눈부셨다. 법어집 한 권 남기지 않았음도 말할 수 있는 일이다. 94년 개혁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 일로 외출할 때는 시자를 물리치고 혼자서 버스타 지하철을 이용한 일화는 유명하다. "사람들의 소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인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시적인 것이고요" 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준 삶이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겨울 털신 여름 흰 고무신

평생 소탈·검소한 생활

잇단 종단분규 위기에도

"한국불교 희망있다" 낙관

년 10월 8일 계룡산 감사사자암으로 출가하여 행자 생활을 시작했고, 1945년 3월 감사에서 금오(金烏)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사미계를 받았다.

탄성스님은 수좌들이 '호랑이 스님'이라고 부르는 금오스님을 모시고 선방 수좌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선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여 절차탁마하였다.

1970년 금오스님을 모시고 청계사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1972년 월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면서는 법주사 총지선원의 의호와 발전에 매진했다. 1961년 수덕사 선원에서 하안거 이후 송광사 수선사, 현종 도성암 선원, 문경 봉암사 선원 등에서 17하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81년 폐사자로 다름없는 공림사 주지로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선원(감인선원)의 재건이었다. 오로지 깨달음을 향



◇지내해 12월말 대전 태전사에서의 탄성스님. 태전사를 창건하고 포교·정진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어록으로 본 탄성스님 가르침

법어집 한편 남기지 않고 훌쩍 우리 곁을 떠나신 탄성스님.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수습에 나섰다 안 정되면 곧장 공림사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며 후학들을 이끌었다. 몸소 보임으로써 가르침을 펼쳐 보였던 것이다. 본지의 '큰스님과 대화' (252호, 2000. 1. 1)와 '수행한담' (176호, 98. 6. 3) '지상법석' (103호, 96. 11. 20) 등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본다.

▶우리는 본래 광명 속에 살았다. 광명 속에 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이데로가 바로 광명입니다. 그런 광명을 보지 못하고 눈감고 해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극락에 가면 너무 즐겁고 호화스러워 공부할 생각이 나지 않고, 지옥에 가면 너무 고(苦)가 심해 공부할 생각을 낼 수가 없으며, 축생에 떨어지면 어리석기 때문에 도(道)가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수행하기 좋은 인간의 몸일 때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를 잘 지니면서 참선 열매 등 수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심이 납니다. 그 증거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는 법이지요. 듣고 읽는다는 것은 불교와의 인연은 필자언정 도를 깨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을 글로 보면 알음알이를 토대로 언어를 회통하고 마음을 가식하여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된 습성은 경의 가르침을 출세와 명예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으로 연결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쓰임을 윤유하게 하고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삶이 힘들고 허망한 것이라 할 지라도 그 속에 무궁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알면 최상의 열라이 있으니 열심히 참선하여 마음자리를 흐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내 마음자리를 편케 하는 것이 참선이고 내 몸을 안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 다 중요한 불자들의 실

임종계

山人我相
산빛도 인어의 모습이요
流水是非露
흐르는 물도 시비의 소리로다
山水聲難離
산빛도 물소리도 떠난 곳에
難居平生
귀머거리도 병어리도 평생을 살리라

약력

- 1930. 10. 1 충북 보은 생
- 44년 감사에서 금오스님 은사로 득도
- 45년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
- 55년 법어사에서 고암 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1년 수덕사 하안거 이후 송광사 수선사, 도성암,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17하안거 성만
- 70년 청계사 주지
- 72~76년 조계종 중앙총회의 원
- 74년 공림사 주지
- 75년 안암사 주지
- 76~82년 법주사 주지
- 80년 불교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
- 81년 공림사 주지
- 94년 개혁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 총무원장
- 97. 3. 10~ 원로회의 의원
- 99. 4. 2~ 원로회의 의장
- 2000. 6. 8 공림사에서 입적

우리는 본래 광명속에 사는 존재 법문 듣고 실천 안하면 소용없어

나타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얘기 듣지 않아도 또한 책을 보고 찾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되며 항상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출가사문의 뜻은 깨우침에 있습니다. 자기 수행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가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포교도 해야 하지만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자기 수행에 전념하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은사인 금오스님은 늘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수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해와 달이 밝아서 우주를 비추는 데 천소도 없고 원근도 없이 어느 곳이든지 똑같이 비춥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춥니다. 우주를 평등하게 비추는 해와 달이 차별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해가 뜨다보니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정인만을 제도하려 하지 않지만 제일 먼저 착하고 신심있는 사람을 먼저 제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문도 많이 듣고 경전도 많이

천사향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불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하루 마음자리를 잘 조절하여 편안하게 하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좋은 인연의 실체를 영위하는 지혜를 가꾸어 줍시다.

▶불교를 어렵다고 합니다만 세수하다 코만지기 보다 쉬운 것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모두 수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지요. 자기 마음을 닦아 그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인데 모르니까 어렵다고 단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불법이 개혁이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변했으니 그에 알맞은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거나, 불법의 정신을 이 시대에 꽃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개혁이라 봅니다.

▶조선시대 이래 한국불교사는 굴곡의 역사입니다. 원인은 스님들의 수확이 부족했단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승단의 자기 반성이 절대 부족했던 점도 한 원인이지요. 이제 승단이 교육에 힘쓰고 대중교화에 노력한다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사상적 윤리적 지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면사정으로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쉽니다.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五加 不用金玉滿車 (명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김철(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인 신김철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김철(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순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통이나 불통증, 기미, 피부 및 탈모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 ▶ 생리통·기미 33세인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 해당되는 증상(○)을 꼭 체크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12. 피로를 자주 느낀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16. 목이 메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한다.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